

음악 미술 영화가 만나는 ‘한여름 밤의 만찬’

노엘라 콘서트 ‘마이 디너 워드 노엘라’

싱금 올리는 ‘노엘라 바이올린’ 인상적
영화 그림 퍼포먼스 어우러진 종합예술
8월2일부터 CJ아지트대학로에서 펼쳐져

“예술이란 이런 것!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던 순간, 객석은 사람으로 가득 찼다.”

“마음을 올리는 바이올린 선율, 대화를 통해 삶을 관조해보는 영화, 명화, 영화 속 명대사, 그리고 문학작품이 맛있게 차려진 식탁.”

지난 2014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내 최초 영화, 공연, 꽃의 콜라보레이션’ 콘서트에 대한 문화평론가들의 찬사다. 관객들은 ‘전석 매진’으로 그 가치를 평가했다.

그로부터 4년 후, 다시 그 감동의 무대가 관객을 찾아온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기에 감동 또한 더 깊을 것이다. 바이올리니스트 노엘라의 특별한 콘서트 ‘마이 디너 워드 노엘라(My dinner with Noella·이하 노엘라)’가 그것이다. 2014년 초연에 이은 앙코르공연 성격. 8월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CJ아지트대학로에서 총 13회 무대에 올려진다.

무대는 노엘라의 뉴욕 공연 첫 날, 리허설과 본 공연 사이 자투리시간 동안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삶을 반추하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우리의 일상이 곧 예술과 맥이 닿는다는 게 주제다.

노엘라 콘서트는 여느 콘서트와는 결이 다르다. 바이올리니스트 겸 베스트셀러 작가인 노엘라가 쓴 시나리오를 씨줄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영화제작과 영화에 맞는 음악·명화를 날줄로 엮



‘콜라보레이션 무대의 선두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노엘라의 콘서트 ‘마이 디너 워드 노엘라’가 오는 8월2일부터 11일간 CJ아지트대학로에서 열린다. 사진제공 | 현대문화기획

은 종합 예술콘서트다. 물론 콘서트의 기둥은 노엘라 특유의 싱금을 올리는 바이올린 연주. 여기에 탄탄한 무대와 페인팅 퍼포먼스라는 양념을 넣어 ‘달콤새콤한’ 무대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 ‘메인 디시’의 요리사는 노엘라.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다.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가로 세계적인 명문음대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를 거쳐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뉴에이지 바이올리니스트로 ‘Shinning Cloud(2008)’와 ‘Beautiful Sorrow(2010)’ 등 총 2장의 앨범을 냈다. 지난 2월에는 평창올림픽성공기원프로젝트 ‘원빅토리’의 연주, 작사 및 총괄감독을 맡아 주목을 받았다.

그의 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예술에세이 ‘그림이 들리고 음악이 보이는 순간 I·II(노엘라 저·나무수 펌)’를 내 예술분야 베스트셀러를 이끌어냈다. 또 그림과 음악의 하모니를 주제로 강연과 공연이 접목된 ‘렉처 콘서트(Lecture Concert)’를 선보이기도 했다. 최근엔 소설 ‘빨주노초 파남보(가디언 펌)’를 써 영역을 넓히고 있다.

메인 디시를 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이드 메뉴도 이채롭다. 미혼모를 위한 자녀동반 공연(8월 11일 오후 2시)을 기획했다. 아이 때문에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힘든 미혼모만을 초청한 특별공연이다. 또한 매 공연마다 특별게스트로 서양화가 이목을 화백이 출연해 즉석에서 페인팅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즉석 페인팅 작품 13개는 경매를 통해 수익금 일부를 ‘미혼모 기금’에 쓴다.

무대에 대한 자신감도 넘친다. “초연무대보다 업그레이드된 탄탄한 무대가 강점”이라는 게 제작사측의 설명이다. “조명과 무대장치, 영상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그림 작품을 보는 듯한 무대가 연출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다.

노엘라는 “예술의 경계를 넘어 서로 통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수진 기자 sujin22@donga.com

시간

●평권 날다(미투에서 평등까지)

(송문희 저 | 행복에너지)



저자 송문희(고려대 평화와민중주의연구소 정치리더십센터 연구교수)는 이 책 속에서 미투 운동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적 문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데이트 폭력부터 사회

속 권력을 가진 자의 갑질 횡포까지. 종류만 다를

뿐 한결같은 성차별과 성폭력이 내재해왔음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저자의 증언을 통해 독자들은 현대사회가 얼마나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제에 대해 둔감하고 비합리적인지 알게 된다. 미투 운동을 통해 페미니즘에 관심이 생겼거나 사회의 성차별, 성폭력 병폐를 명쾌하게 포집어줄 책을 찾던 독자라면 이 한 잔의 ‘사이드’를 권하고 싶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김정은·김성호 저 | 미래의 창)

‘한류보다 더 뜨거운 대한민국 연예산업 현장 르포’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는 이



제 한국경제의 주요 산업분야가 됐다. 뛰어난 기획력, 기발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히트 메이커즈의 이야기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흥미진진하다. 이 책은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의 본산이면서도 제대로 된 이론서 한 권 찾아보기 힘든 현실에서, 현장의 크리에이터와 기획자, 연예인, 업계 지망생에 이르기까지 엔터테인먼트라는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최신 흐름과 정확한 맥을 짚어주는 가이드가 될 것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에듀윌

합격보다 힘든 취업…“에듀윌 동문회·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해라”

“교수님의 교재를 현장의 바이블로 활용해서 봅니다. 71세 늦은 나이지만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2모작을 에듀윌로 시작해서 기쁩니다.”

에듀윌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관리실무 교수가 자 취업관리 센터의 자문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영근 교수가 직접 받은 메시지다.

주택관리사는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거나 소장으로 업무하는 전문 자격 분야로 정년과 나이 제한이 따로 없다.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일정하고, 70대까지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

업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자 취득하는 유망 자격증 중 하나다.

그러나 주택관리사의 경우 합격보다 취업이 더 힘들기로 정평이 난 자격증이다.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는 물론 실무에 돌입하기 전 실습을 하는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또한 취업 준비를 혼자 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여건상 어려워하는 이들도 많다. 취업을 위해선 정보력도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의 합격 전략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에듀윌은 합격 이후에 취업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에듀윌 주택관리사 동문회’를 운영하고,



이력서나 면접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합격생들도 전담 컨설팅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선정부터 선거관리, 시설관리, 노무관리, 회계관리에 이르기까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에게 직접 배우는 실무 특강도 수강할 수 있다.

이수진 기자

주택관리사 합격 후 취업 TIP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채용 사이트의 정보는 물론 인맥을 통한 고급 수시 채용정보도 제공한다.

이력서나 면접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합격생들도 전담 컨설팅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선정부터 선거관리, 시설관리, 노무관리, 회계관리에 이르기까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에게 직접 배우는 실무 특강도 수강할 수 있다.

이수진 기자

강주현의 퍼즐월드

(모바일) WWW.경품광고쿠키.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4			8			5	
1			3		4			2
3		2				6		4
	1			6			3	
		7	8		3	2		
	2			1			4	
4		8				1		5
2			4		1			7
	7			2			6	

	3		2		8			
		1		6		9		2
	8		7				4	
1				5		3		7
	7		6		9		1	
8		3		2				9
	1				6		5	
5		8		1		7		
			5		2		3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정답

8	9	7	8	2	6	1	2	9
2	8	6	1	9	7	9	8	2
9	2	1	2	8	9	8	6	7
9	7	9	6	1	2	8	2	8
6	1	2	8	7	8	2	9	9
8	8	2	9	9	7	1	6	
7	2	9	9	6	1	2	8	8
2	6	8	7	2	8	9	9	1
1	9	8	9	8	2	6	7	2
1	8	8	2	2	1	9	7	9
9	6	2	8	1	7	8	2	9
7	9	2	9	8	6	1	1	8
6	9	7	2	2	1	8	9	8
8	1	9	6	8	9	2	2	7
2	2	8	7	9	9	6	1	
8	7	9	1	6	2	9	8	2
2	8	6	9	9	8	1	7	2
9	2	1	8	7	2	6	8	9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7월 27(금)·28(토)·29(일)

주 행운색 금: 청색 토: 흰색 일: 흰색	☞ 오늘의 마음:가을비, 떠나고 싶다. 운세: 꿈은 크나 현실이 협조하지 않는다. 형제나 친구들의 조언을 구하면 좋겠다. ☞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정성을 다하면 주변인의 지원으로 취업이나 거래, 자금유통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주변의 변화로 인한 이득이 있는 날이다. 상수 받는 일, 복권당첨일이 될 수도 있다. 길방:동 길방:서 길방:서
소 행운색 금: 흰색 토: 적색 일: 흰색	☞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켜라. 주위의 조언이 도움이 된다. ☞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세상은 바빠 돌아가는데 나만 홀로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서두르지 말라. ☞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문서 운이 있어 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실이 뒤따를 수 있다.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길방:서 길방:서 길방:서
호랑이 행운색 금: 검정 토: 검정 일: 적색	☞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변화나 변동 상황에서 번민이 따르니 자체와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필요하다. ☞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오늘은 길과 흉의 운기가 교차하는 시기이다. 문서업무에 신중 하라. 성급하면 안 된다. ☞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하다. 운세: 평소엔 내내던 사람도 오늘은 차분해진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길방:북 길방:북 길방:남
토끼 행운색 금: 검정 토: 검정 일: 검정	☞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 운세: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위기를 잘 극복하면 대가가 기대 이상으로 크다. ☞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매사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다. 대인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공연히 분주해지고 상란해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어렵다. 숙고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라. 길방:북 길방:북 길방:북
용 행운색 금: 적색 토: 적색 일: 흰색	☞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확성이나 변화를 원한다면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 운세: 경계방동을 삼가야 할 시기이다. 경술에 나아가면 신에 신이 승복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니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길방:남 길방:남 길방:서
뱀 행운색 금: 청색 토: 청색 일: 청색	☞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게 되며 특세하게 된다. 진급하게 되며 우월한 위치에 등극하게 된다. ☞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 운세: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 답답하다. 답뱀이 귀인이다. 길방:동 길방:동 길방:동
말 행운색 금: 노랑 토: 청색 일: 청색	☞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자기주장이 강해서 괜히 성질부터 자신만 상쳐 입는 날이다. 토끼띠가 귀인이다. ☞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기초와 경륜이 탁월하여 화계에 연관된 부문 즉, 예술과 문학 등의 분야에서 빛을 발한다. 길방:중앙 길방:중앙 길방:동
양 행운색 금: 적색 토: 적색 일: 흰색	☞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발길. 운세: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혼자서 일 처리하지 말라. ☞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오늘은 기발한 표현으로 상대를 누르고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매사 겉만 보고 평가하지 말라. 길방:남 길방:남 길방:서
원숭이 행운색 금: 검정 토: 노랑 일: 노랑	☞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보다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노력한다면 차츰 나아지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발길. 운세: 매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용띠를 만나면 도움 된다. 작은 일은 성취된다. 길방:북 길방:북 길방:중앙
닭 행운색 금: 노랑 토: 검정 일: 노랑	☞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급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명예를 얻고 금전 융통도 원활하다. ☞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여성의 경우 남편이 시시해 보인다. ☞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발길. 운세: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돼지띠가 귀인이다. 길방:중앙 길방:북 길방:중앙
개 행운색 금: 적색 토: 적색 일: 흰색	☞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로 곤란한 지경에 놓일 수 있다. 뜻밖의 좋은 만남이 있겠다. ☞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인맥이 있으며 수일이 늘어 기쁘다. 공연히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 ☞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야 한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라. 길방:남 길방:남 길방:서
돼지 행운색 금: 흰색 토: 흰색 일: 흰색	☞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인사იდ통,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지출도 많을 때이다. ☞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밝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동료들의 협조를 얻는다. 길방:서 길방:서 길방:서
재운 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 4, 7, 9, (1, 3)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일 행운의 띠: 소, 뱀, 닭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호랑이, 말, 개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